

신안 자은도, 전국 유일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부, 민간자본 2838억 유치 등 성과 인정 ... 관광산업 '탄력'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대상에 포함

신안 자은도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가 준공되면서 한층 가까워진 자은도에 2800여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 신안군의 성과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자은도의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신안군의 관광산업 전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추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신안군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유일하게 지정됐다. 신안군 자은도 내 38만㎡에는 현재 신안군과 지오컨소시엄이 2838억원을 투자해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난 6월 개장했다. 지오컨소시엄 측은 앞으로 인근 54만㎡ 규모에 모두 8300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호텔 1동, 리조트 2동, 휴양펜션단지, 전원휴양시설, 마리나 시설, 세계특화거리 등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78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 교류를 활성화해 해양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대상은 해남군과 함께 거창군, 고산군, 남해군, 옥천군 등 5개 지자체다. 해남군은 현재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복일초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 학교,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전학·입학 가구를 유치 중이다.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24억원의 국비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0-30호)과 어린이 도서관, 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자은도가 1일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지난 6월 415객실을 갖춘 호텔·리조트 등 관광단지를 개장하는 성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자은도 전경. /신안 자은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속도 낸다

의원총회 열고 추진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진한 지 21일 만에 비대위 전환을 사실상 추진한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

난 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은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 등을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의원총회엔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했으며 현재가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명이었다고 양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별 간담회를 거쳐 의원총회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함에 따라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가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뒤에는 비대위 구성 안건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비대위 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만큼 입장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당 일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도 제기된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는 원내대표직에 대한 재선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당에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월 무역적자 46억7천만달러...4개월 연속 적자 행진

對중국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7월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4월부터 7월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수출이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7월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특히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적자를 보여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3달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7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증가한 607억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약 6조9000억 원) 적자를 보여 지난 4월부터 7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월별 적자 규모는 4월 24억8000만달러, 5월 16억1000만달러, 6월 25억7000만달러에 이어 7월

46억7000만달러로 커졌다.

무역수지가 7월 연속 적자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수출은 지난해 동월보다 52억달러 증가해 역대 7월 기준 1위였다. 하지만 수입은 650억달러를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연속 해당 월의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112억달러로 역시 같은 기간 사상 최대 규모다. 7월 수입은 653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이며 3월부터는 5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상회했다. /연합뉴스

미국서 '5·18민주화운동의날' 제정한다 ▶6면

굿모닝 예향 - 남도 오디세이 '보성' ▶18·19면

전용태 근대5중 세계선수권 2관왕 ▶22면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